

유니클로 할인공세에 '사이팬' 몰렸다

#지난 19일 저녁 늦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한 유니클로 매장.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매장을 돌며 마음에 드는 옷을 잡고 계산대 앞에 섰다. 이후 결제를 마치고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가더니 매장 출입구 앞에서 흰색 비닐봉지를 뒤집기 시작했다. 뒤집은 흰색 봉투엔 '유니클로' 마크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펴더니 산 옷을 넣고 흡족한 표정으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유니클로가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퍼붓자 이른바 '사이팬'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몰려들었다. 도심의 매장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불매 운동이 한창일 때 온라인에서 머물던 골수팬들이 다시 매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유니클로' 안보이게...비닐팩 뒤집어 가리는 고객

이날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서울의 한 유니클로 매장은 겨울 아이템 히트템과 후리스를 사려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몇 달 전 한산했던 분위기와 전혀 달랐다.

지하와 1층에 마련된 계산대엔 긴 줄이 이어졌다. 장바구니 가득 의류를 채워 놓고 기다리는 손님도 일부 있었다. 한 20대 여성 무리는 "이것 봐! 살 사람은 다 산다"며 직원에게 히트템 진열대 위치를 묻기도 했다.

다만 유니클로를 찾은 손님들은 여전히 일본 불매 운동에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매장 안에서 평소처럼 제품을 구매한 것과 달리 매장 밖을 나갈 때는 조심스러워 보였다.

실제 몇몇은 매장 문 앞에서 주뻔거렸다. 일부 손님들은 문 앞에서 흰색 비닐봉지를 뒤집기 시작했다. 봉투 겉면에 쓰인 '유니클로' 마크를 최대한 보이지

불매 운동 의식해 종이가방 챙겨와 의류 담아가 '겨울 감사제' 히트템 무료 증정 행사 조기 매진

않게 하려는 행동이다. 계산대 앞에서도 비슷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일부는 직접 들고 온 종이 가방에 제품을 넣어 갔다. 직원이 유니클로가 적힌 봉투에 담아주겠다고 하자 거절하고 직접 메고 온 가방에 챙기는 손님도 상당수 있었다.

◇ 공짜 히트템 받겠다?...사은품 매진

불매 운동이 사그라진 배경엔 계속된 할인행사가 있다. 유니클로는 지난 15일부터 '15주년 겨울 감사제'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히트템엑스트라웨이 정장가 1만9900원에서 할인해 1만2900원에 팔린다. 특히 행사하는 동안 선착순으로 히트템 10만장을 무료로 준다.

매장 안 몇몇 손님이 직원에게 히트템 행사를 문의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계산대 앞에서 결제하러다 행사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일 다시 오겠다"며 들고 온 옷을 다시 돌려놓기까지 했다.

유니클로 한 직원은 "무료로 히트템을 받으려면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한다"며 "1시간이면 확보한 물품이 모두 소진된다"고 말했다. 계산대 직원은 7만원 이상 산

고객에게 주는 텀블러 증정 행사 역시 끝났다고 했다. 그는 "영수증만 들고 내일 일찍 오면 텀블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히트템을 무료로 받기 위해 품수를 부리려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히트템 무료 증정 행사는 일반 제품 1개를 사면 히트템 1개를 무료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일부 손님은 제품을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닌 별개로 구입하고 히트템을 여러 장 받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기까지 했다.

유니클로를 향한 불매 운동이 단기간에 몰밀로 사라지면서 논란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유니클로 일본 임원의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망언이 현실이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난 19일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 우익과 언론에서 얼마나 비웃겠나. 아무쪼록 우리 모두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불매 운동은 강제사항이 아닌 탓에 개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국내 브랜드가 출시하는 발열내의 종류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유니클로 제품이 아직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 8천억 원 규모 광주 풍향 재개발사업 수주

포스코건설이 지난 9일 광주교대 풍향문화관에서 개최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8천억원 규모의 광주 풍향역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58명 중 501명(52%)으로부터 표를 받아 향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풍향구역 재개발을 이끌어 가게 된 것이다.

광주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의 15만2317m²(46,075평)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6층, 지상 최고 34층, 28개동 규모의 단지 및 부대복리시설로 새로이 거듭된다.

최고 34층 · 28개동 규모...100m 높이 스카이 브릿지 "광주 최고 명품 아파트 약속...지역 내 랜드마크로 보답"

지난 수개월간 치열한 수주전에서 포스코건설은 광주 풍향구역만을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를 제안했다.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라 데팡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글로벌 게이트', 무등산 서석대와 능선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 100m높이의 스카이 브릿지 등 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대표할 랜드마크로서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여기에 강남 프리미엄 단지에 적용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최고급 마감재와 세대당 2.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포스코광관 기술을 활용한 인테리어 마감재 '포스마블' 등을 제시해 광주 최고의 명품 단지에 걸맞는 고품격 특화를 약속했다.

특히, 발코니 수입 조합 귀속, 이주비 지원 등 파격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풍향구역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구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을 통해 포스코건설과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초중고와 광주교대까지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포스코는 포스코건설과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간 조합원 한 분 한 분께 정직하고 진심을 담은 설계를 약속드린 결과, 포스코건설을 믿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며, "포스코건설의 청사진을 믿고 맡겨주신 만큼, 풍향구역을 광주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더해 지역내 랜드마크로 보답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광주를 대표할 초대형 명품 단지에 서방시장의 옛 영광을 재현할 차별화된 상업시설로 광주 북구 구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포스코건설 광주지사, 앞으로 풍향구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7~10월 日 항공여객 543만명...전년비 21.2% ↓

최근 3개월(7~10월)간 일본 항공여객이 급감했다. 하지만 동남아 등 대체지역이 이를 흡수하면서 전체적인 항공여객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10월 전체 국제선 항공여객은 3026만명으로 전년 동기 2919만명 대비 약 3.7% 증가했다. 동남아 항공 여객은 약 860만명

으로 전년 동기 725만명 대비 18.7% 증가했다. 중국 노선 역시 663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591만명 대비 12.3% 늘었다.

반면 7~10월 일본 여객은 약 543만명으로 전년 689만명 대비 21.2%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노선망에서의 일본노선 편중을 완화하고, 항공네트워크를

다변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저비용항공사(LCC) 노선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공여객실적은 크게 상승해왔다. 이중 2013년 항공자유화 합의, 근거리·무비자 관광지라는 점 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체 국제여객 실적의 25%, LCC의 46%가량이 일본 노선에 편중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

요가 국내여행 또는 중국·동남아 등 대체지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공항의 운항시각(슬롯, 항공기 이·착륙 시각)을 지원하고, 정기·부정기편의 허가 및 계획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8개 여행항공사는 전체 국제선 공급좌석 대비 일본노선 비중을 6월 당시 32.2%에서 현재 20.6%로 낮추고, 중국·동남아·대양주 등으로 노선을 분산했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